

2024

대구광역시 28 **Weekend**

2024 **대구광역시 28**

D-13

극한폭우 水磨...

대구서도 1명 목숨 잃었다



예천군은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10일 오전 10시 기준 누적 강수량이 평균 387.5mm에 달했다. 현재 누적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지보면이다. 열흘간 강수량이 422.5mm이다. 8일 하루 동안 172mm, 10일 60.5mm가 쏟아졌다. 12개 읍면 모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평균 강수량이 387mm에 달했다. 전 직원이 비상 체계를 유지하며 호우피해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가 10일 밤새 퍼부는 수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예천군 제공>

달성 용산교 등 도로 12곳 차량 사람 통행 전면통제 고모동 A파크골프장 수위 높아져 강 안쪽 시설물에 직원 1명 간혀 '헬기' 구조 경산시 주택 침수 산사태 주민 29명 마을회관 대피 이철우 지사, 모든 공무원 비상 대응 태세 철저히 유지 현장가용자원 총동원특명

관련기사 3면

물폭탄이 전국을 집어삼켰다. 도로가 휘어지고 주택은 물에 잠겼다. 산사태로 주민들이 대피했다. 농경지는 완전 침수됐다. 폭우가 지나간 자리다. 전국에 사흘 간 내렸던 기록적인 폭우는 10일 그쳤지만 수

마가 휩쓸었던 피해는 상당했다. 대구에서 국지성 호우와 강한 장맛비가 사흘째 쏟아지면서 60대 주민 1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소방 당국은 10일 오전 8시께 비 피해가 발생한 북구 조야동에서 주민으로부터 "물에 잠긴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한 주택 인근 도랑 배수구에서 A(60대 남성 추정)씨를 발견했다. 대구북구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다. 주민들이 고립되고 도심 곳곳이 침수되거나 나무, 담장이 넘어졌다. 교통통제도 계속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6시부터 10일 오전 6시까지 비 피해와 관련해 인명구조 5건, 배수 지원 34건, 안전조치 92건의 활동을 벌였다. 소방당국이 수습 중인 신고 사례도 많아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일 밤 10시 18분께 달성군 가창면의 주택이 침수됐다. 10일 오전 5시 1분쯤에는 달서구 계명대 동문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가로수가 뿌리가 뽑혀 넘어졌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오전 6시 30분을 기해 침수 우려가 높은 동구 속천교 하단, 금강 잠수교, 오목천 잠수교, 대림교 지하도,

안심교 하단 복편 지하도, 아양교 기차길 하단, 수성구 가천 잠수교, 두산교 지하도, 남구 상동교 하단, 달성 용산교 등 도로 12곳에 차량과 사람 통행을 통제했다. 대구 도시를 관통하는 신천 일부와 동촌유원지는 접근이 통제됐다. 고모동의 한 파크골프장에서는 수위가 높아져 강 안쪽 시설물에 직원 1명이 간혀 헬기로 구조되기도 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경산에서는 10일 오전 11시 현재 주택 침수와 산사태 발생 우려 등으로 3개 마을 주민 29명이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해 생활하고 있다. 경산시에 따르면 하양읍 남하리 마을회관에는 주택이 물에 잠긴 주민 5명이 9일부터 임시기거를 하고 있다. 남천면 협석리 주민 18명은 산사태 우려 등으로 마을회관에 대피해 있다. 금경사 저지대인 남산면 사림리 마을의 주민 6명도 마을회관으로 몸을 피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마을회관 대피 인원이 한때 41명에 달했다. 경북도는 총비상사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모든 공무원이 비상 대응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현장에서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성용 기자



달성군, 구지면 창6리, 창7리 경로당 개소식

달성군은 10일 구지면 창6리(국가산단 디에트)와 창7리(국가산단 모아미래도) 경로당 2개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두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군의원, 기관단체장, 마을주민

등 80여 명이 참여해 개소식을 가졌다. 신성현 창6리 노인회장 및 김기수 창7리 노인회장은 “많은 이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마련

돼 기쁘고 감사하다.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노인들이 화합하는 공간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창6리창7리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모여 지낼 수 있는 여가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베트남 다낭시 당서기 대표단 흥준표 대구시장 예방

다낭시 당서기, 부시장 등 고위급 방문 단 대구 방문 경제, 관광 등 다방면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및 대구-다낭 '국제통상분야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다낭시 당서기의 대구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는 '국제통상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그간의 우애와 교류를 바탕으로 국제통상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향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핵심 협력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통상 및 교류협력 증진, 민간 분야(기업, 문화, 예술 등)의 협력 장려를 위한 세부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베트남은 대구시의 3대 교역국 중 하나로, 중국에 이어 세계적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다낭시는 베트남 중부 최대 도시이자 동남아시아 무역관문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시와 자매우호협력 20여 년을 맞은 다낭시는 관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최고 수준의 교통·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며 베트남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 주요 투자처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흥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제조 강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다낭시 당서기의 방문으로 상호 교류협력의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양 도시 간 전 분야에 걸친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의 발전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은원 반 팡 베트남 다낭시 당서기를 비롯한 대표단 12명이 10일 흥준표 대구시장을 예방, 한국-베트남 주요 사항에 대한 양 도시 간의 협력과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3월 대구시가 다낭시를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성격으로 이루어졌다.

양 도시 간 상호교류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구-다낭 국제통상분야 협력 강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대표단에는 은원 반 팡(Nguyen Van Quang) 다낭시 당서기를 단장으로, 쩌치 쩌엥(Tran Chi Cuong) 다낭시 부시장, 응웬 반 팡(Nguyen Van Phung) 다낭시 재무국장 등 다낭시 정부 핵심 인사가 모두 참여했다.

흥 시장과 다낭시 방문단은 직항노선 확대 및 경제·관광·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구교통공사, 집중호우 대비 총력 대응

저지대 역사 출입구 인상, 출입구 차수판 설치 등 선제적 대응 총력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되는 가운데, 대구교통공사는 사고예방 총력 대응으로 올해도 “재난안전사고 ZERO”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김기혁 사장은 지난 4일 수성구청역, 8일 문양차량기지, 10일 안심-하양 연장구간을 직접 방문해 저지대 역사와 급경사지 구간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사는 외부에서 도시철도 역사로 유입되는 빗물을 차단하기 위해 65개 역 277개 출입구와 45개 역 75개 엘리베이터에 차수판을 전진배치해 갑작스런 폭우에도 대응할 수 있게 했으며, 지상부 출입구 인근 배수시설 개선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18개역 34개 출입구 계단인상과 11개역 16곳의 지면형 환기구에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빗물 유입 차단을 위해 노력했으며, 역사별 배수방재

와 양수기 등 장비를 완벽히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과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진행중인 공사 현장들은 이례상황에 대비해 비상연락망 정비 및 사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번 장마기간에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기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군위군, '레미제라블' 등 어린이 뮤지컬 기획공연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명작 뮤지컬



나 한 번쯤 읽어봤을 소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관람 할 수 있는 가족 뮤지컬이다.

군위군이 군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 기획한 7월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레미제라블-코제트 소녀이야기'는 어린 코제트의 상상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장난감 가게 등 볼거리와 신나는 음악, 그리고 화려한 무대가 돋보이는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문화예술을 즐기 어려운 어린 자녀를 둔 가족까지 관람하기 쉬운 공연으로 제작되어 많은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빛나 연출은 ‘원작 소설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어린이들이 집에 돌아가다 시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하였으며,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내용을 전달함과 동시에 꿈과 희망을 품어 주고 싶어 기획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레미제라블-코제트 소녀이야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www.gunwiart.go.kr) 또는 054-380-7212 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성 기자

군위군은 오는 18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빅토르 위고의 명작 '레미제라블'이 어린이 뮤지컬 '코제트 소녀이야기'로 우리의 곁에 찾아온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코제트 소녀이야기'는 아름답고 귀여운 소녀 코제트의 이야기로 누구나

수성구-공인중개사협회 수성구지회, 업무협약

'복지 위기가구 발굴 고독사 예방' 위해



수성구는 지난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수성구지회와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1200여 개 부동산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와 손잡고 민간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요청 △적절한 자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 △위기가구 발굴사업 대인 홍보 △기타 정보 공유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수성구는 수성구지회 임원진 52명을 수성구명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인 '행복수성지킴이'로 위촉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위기가구 알림 앱과 신고 채널을 안내하고 위기가구 발굴 활동 책자를 제공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월세 체납, 열악한 주거환경, 우편물 방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 지원을 요청하면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은 신속히 상담에 들어가 위기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민간이 함께 주민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취약계층 고독사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한 만큼 이웃을 향한 관심이 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동구청, 호우 피해 대비 총력

동구청은 동구 관내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8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빈틈없이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동구는 10일 오전 7시 기준, 인명피해는 없으며, 차량 침수 1건, 담벼락 무너짐 1건 등의 피해가 접수됐다.

통계 현황은 하천 3개소(동화천, 불로천, 아양기차길 친수시설), 도로 5개소(숙천고 하부도로, 왕산고 하부도로, 안심고 복편 하부도로, 공항고 우안 하부도로, 신천동로), 잠수교 4개소(금강잠수교, 오목잠수교, 가천잠수교, 강촌햇살교), 둔치주차장 1개소(아양기차길 둔치주차장) 등이다.

동구청은 앞으로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소방, 경찰 등 과도 정보를 공유해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조미경 기자

대구시, 사회적 고립 청년 실태조사

고립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 및 구축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

대구시는 지난 8일부터 8월 4일까지 대구지역 사회적 고립청년의 규모와 주거, 사회관계 등 실태 파악을 통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을 위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구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청년층은 학업·취업·결혼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경제적 이행기로서 최근 코로나19 이후 실직, 취업난, 소통기술 부족 등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를 겪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 회피, 경제·사회활동 미참여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구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고립의 기간·계기 등 고립 경험, △고립 양상(일상생

활, 주거생활, 사회활동 등), △고립청년 및 가족의 상태와 특성 조사 등을 통해 고립에 대한 인식 및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개인별 고립정도 및 정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 청년(2000명) 및 가구(1,000가구)로, 고립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방문조사와 온라인조사를 병행한다. 또한 고립청년으로 나타난 청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심층조사(70명)도 실시한다.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19세-39세 청년은 누구나 인터넷 주소나 쿼리(QR)코드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김진주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그동안 개인문제라고만 생각되던 사회적 고립청년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립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 사회로 복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조여은 기자

북구청, 대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사업 4년 연속 우수단체 선정

북구청은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기금) 27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공모사업은 하계종목 운영 우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다.

북구청은 이번 공모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운

영계획, 선수단 인권친화문화 조성 노력, 선수단 실적, 사회공헌 노력 등 4개 심사 영역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기금) 27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대구북구청은 2021년 해당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이 시작된 이후 4년 연속 우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선수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선수들이 좋은 여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미경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j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제부	053-253-0065
부시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정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 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령군, 대가야 “대왕(大王)명 토기” 출토...



봉화, 노인인권 등 집합교육

봉화군은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 180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인권 침해 및 학대 문제와 관련해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들의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시행됐다.

경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황은정 관장을 비롯한 4명의 강사가 인권침해, 인권준중개어, 인권감수성, 노인학대 등 다양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에 도움을 줬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시설 종사자는 “실제 경험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대면 교육의 기회가 자주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의성, 농업재해 대응 총력

의성군은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과수원 및 시설하우스 등 45개소를 현장 점검 및 지도했다.

군은 여름철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재해 취약시설 배수로 정비 및 시설보수(비닐 보수·교체, 노후전기시설 교체 등) 상태를 점검 및 현장 지도하였으며, 재해 대비 농작물 관리를 당부했다.

벼는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양분과 오물을 제거한 후 도열병, 흰잎마름병 등에 대비한 방제가 필요하며, 고추 등 노지 발작물의 경우는 요소 0.2% 액이나 제4종 복합비료를 5~7일 간격으로 2~3회 엽면 시비해 생육을 촉진시켜야 한다.

과수의 경우에는 토양 유실 시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조기에 흙을 채우고, 부러진 가지는 병원균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제 및 살균제를 뿌려주는 것이 좋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 잡초 제거 등 배수시설을 정비해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김주수의성군수는 “현장 점검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 등을 통해 농작물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대가야 궁성지 발굴·정비사업 중 궁성지 북벽부 해자 음각인장 확인

고령군이 대가야 궁성지 정밀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해자 내부에서 대왕명(大王名)토기로 추정되는 토기가 발견됐다.

‘대가야 궁성지 발굴·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고대사 및 고고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 9일 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2024년 3월부터 대가야 궁성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대가야읍 연조리에서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대가야시대 토성벽의 흔적과 해자가 확인돼 학계전문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 현장공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대가야시대 해자 최하층에서 발굴한 유물을 수습·세척과정에서 “大”자와 “王”으로 추정되는 글자를 양각해 놓은 토기 조각을 발견했다. 이에 대한 공개 및 검증에 대해 대구·경북지역 고대사, 고고학 교수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상 유물은 타날흔이 시문된 장동용으로 추정되며, 일부분만 남아있고 명문은 음각한 인장으로 찍힌 채 확인된다.

글자는 비교적 선명하게 확인되는 ‘大’자와 아래에 ‘王’으로 추정되는 글자가 있으나, 아쉽게도 하단부가 결실돼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

공개 설명회에서는 결실된 글자의 해석에 큰 관심이 모아졌다.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해당 글자가 ‘王’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해당 글자는 ‘王’ 혹은 ‘干’으로 추정되나, 王의 경우 두 번째 가로이 첫 번째 가로획보다 짧게 쓰여지나, 干의 경우 두 번째 가로획이 첫 번째 가로획보다 길게 쓰여지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글자는 ‘王’일 가능성이 높다.

△충남대학교 소장품인 大王명 유계장경호의 경우, 출토지는 불분명하지만, 금번 출토된 명문토



기와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6세기 중후엽 제작된 대왕명 유계장경호의 선례를 고려하면, 해당 글자는 ‘王’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명문 토기의 출토는 대가야사 연구에 있어 큰 획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가야의 왕도인 고령지역에서 최초로 출토된 명문인면서, 이를 ‘大王’으로 읽을 때 대가야 궁성지의 실체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잠재울 수 있으며, 근래에 제기되고 있는 대가야 고대국가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 보인다.

다만 명문의 해독 및 명문 토기의 의미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단정짓기 보다는 학계에 이를 보고하고 학술토론회를 통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참석한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했다.

고령군은 발굴조사기관과 협력해 ‘大王명 토기’에 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해 해당 유물이 지니는 역사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유물의 명문은 인장으로 찍은 것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대가야 궁성지 발굴조사에서 해자 및 석벽부가 조사구역 동편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가야 궁성지 발굴·정비사업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이어가기로 했다.

가야사 연구는 사실 삼국의 역사에 비해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조사·연구·복원·정비 등을 통해 그 역사문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 결과로 2023년 9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 2024년 7월 고령군이 20년만에 신규 고도로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고령군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대가야권 최대 고분인 ‘지산동 5호분’, 고령지역 최대 토기 가마 유적 ‘인합가리 토기 가마 유적’, 대가야-신라의 접경 지대에 축조된 ‘봉화산성’ 등에 대한 학술발굴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고령군은 본격적인 대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을 통해 역사문화도시 고령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배병백 기자

봉화군-코레일, ‘봉화의 숲 기차여행’

코레일관광개발·산림관광 상품 운영

봉화군은 산림자원과 기차여행을 결합한 산림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레일관광개발(주) 협력해 7월부터 12월까지 ‘봉화의 숲 기차여행’ 상품을 운영한다.

기차여행 코스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영주역에 도착한 후 연계버스를 이용해 봉화군의 산림관광지와 전통시장 및 봉화군로컬푸드직매장을 방문하는 코스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조성한 봉화목재문화체

험장의 목공체험과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숙박을 하며 자연을 만끽하는 가든스테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봉화의 3대 명산 중 하나인 청옥산 생태경영명품 숲길을 걸으면서 새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며 피로에 지친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산림치유 효과도 체험할 수 있다.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약은 코레일관광개발 여행물 누리집에서 ‘봉화’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으며, 상품별 당일 코스와 1박2일 코스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대표 숲속 도시 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영주, ‘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 추가

영주시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주봉화지사(지사장 박은경)와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배)을 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을 신고센터로 지정해 공공요금 감제, 미전입자, 연락두절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신고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된다.

시는 지난 2022년 경북 도내 최초로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을 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영주시노인복지관을 두 번째 사각지대 신고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위기가구 발굴에 이웃 공동체를 적극 활용하여 마을 단위 지역 중심의 복지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매월 둘째 주 수요일)로 현장에서는 복지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알리고 현장 중심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복지위기 알림’ 앱을 안내하고 팸플릿도 배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이종우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현판식을 계기로 우리 이웃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성주군, 국가 암검진 미루지 말고 꼭! 받으세요

성주군은 군민들이 국가 암검진을 놓치지 않고 받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질병 1위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 시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기에 조기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암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거나 없어 간과하기 쉽기에 조기 검진이 생

명을 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올해 국가 암 검진 대상은 짝수연도 출생자로 △위암 40세 이상 남녀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폐암 54~74세 이하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매년 검진대상자) ▲간암 40세 이상 남

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6개월 간격 검진대상자)이다.

검진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연말에 수검자가 몰리는 출렁현상이 예상되니 여유가 있을 때 조기 검진 하는 것을 추천한다.

검진 기관은 전국에 위치한 병의원 중 지정 검진 병의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로 문의하거나, ‘n-well 국민건강보험(hi.nhis.or.kr)’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도재훈 기자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일보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 구독문의
053-253-0000

경주시립도서관이 2024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내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새달 6~8일까지 총 3일간 시립도서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여름 독서교실은 '도서관에서 떠나는 지구여행'이라는 주제로 지구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

△지구의 역사 △우리의 지구 - 함께 살아가요 △바다가 아파요 등 지구 관련 강의를 한다. 독서교실로 도서관 이용법 및 예절을 학습하고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함과 동시에 지구와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공유된다.



경주시, 대한체육회 주관 공모사업 선정 쾌거

하계종목 창단지원 1억6600만원
운영지원 1억1600만원 예산확보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이 올 3월 전국태권도대회에 참석해 수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한체육회 주관 공모사업에 2건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시는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및 운영지원 사업에 각각 선정돼 총 사업비 2억 8200만원을 확보했다. 공모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직장운

동경기부 창단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우수선수 육성·발굴을 위해 훈련용품, 대회 출전비, 전지 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올 1월 창단된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은 창단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해 3년간 1억6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단 지원은 5년 이상 창단팀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 4개 팀(육상, 트라이애슬론, 우수, 검도)은 운영 지원 사업에 응모해 올 한해 1억1600만원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지역 내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日 한일우호의원연맹 의원들 경주 온 까닭?

주낙영, 日 입헌민주당 의원들과
경주-일본 교류 협력 방안 논의

주낙영 경주시장이 일본 한일우호의원연맹 의원들과 만나 경주-일본 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을 단장으로 한 일본 입헌민주당 한일우호의원연맹 의원 11명이 지난 9일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경주를 찾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로, 이번 방문이 양국 간의 새로운 우호와 협력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한일우호의원연맹 의원들의 경주 방문을 환영했다.

일본 입헌민주당 한일우호의원연맹의 경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주와 일본의 교류 확대에 발맞춰 두 지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회동이 성사됐다.

간담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자 한일의

원연맹 부회장인 김석기 의원,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이상걸 경주상의 회장을 포함해 재부산 일본총영사관 요코사와 요시나카 정무영 사도 참석해 두 지역 간 관계를 돈독히 했다.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은 "동북아 번영을 위해 한일 협력은 필수적이며 의원들의 서투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겠다. 내년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양국 학생들의 교류가 더욱 확대된다면 한·일 관계의 미래는 밝아지고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함께 경주를 찾아주시는 일본 입헌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양국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협 경주시의장은 "한국은 일본과 함께 APEC 창설 회원국으로서 아태지역 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내년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난타 그리고... 웃음靑春 마음껏 발산

경주시, 행복 황촌 주민
대상 난타 프로그램 개강

경주시가 '다 함께 타타타'를 개강했다. 행복황촌 도시재생 주민 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참사랑 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의 난타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난타 전문 강의를 위한 현곡면 금장리 경주타와 퍼포먼스 연구소에서 진행된다. 황오동 주민 15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까지 총 10회로 운영된다.

사업을 추진하는 김임주 참사랑 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대표는 "난타는 복을 이용해 귀에 익숙한 가요나 팝송에 맞춰 악기를 두드리는 활동으로 일상 속 스트레스를 난타로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10회간 배운 실력으로 공동체 활동 참여와 봉사를 위한 요양시설 및 행복황촌 마을행사에서의 공연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복순씨는 "신나는 음악을 통해 악기도 연주하고 운동도 할 수 있

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든다. 난타를 통해 이웃과 함께 웃고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동수 철도도심재생과장은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해를 거치며 실효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주서 영호남 장애인 스포츠로 하나 된다

경주엑스포공원 등지서 문화답사
경주·여수 두 도시간 유대감 강화

'제3회 영·호남 장애인문화체육 친선교류전'이 10.11일 이틀간 열린다.

행사는 경주·여수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했는데 경주장애인체육관, 교원드림센터, 경주엑스포대공원 등 3곳에서 나눠 개최된다.

행사 첫날 10일 경주시 장애인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15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교류전이 펼쳐졌다.

교류전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강우연 여수시장,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이성호 경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출전선수들을 격려했다.

교류전은 탁구, 배드민턴, 보치야, 슌런, 좌식 배구 등 5개 종목으로 두 도시 선수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경기를 펼쳤다.

교류전 뿐 아니라 경주엑스포공원 등지

에서 문화답사를 즐기며 두 도시간 유대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가졌다.

교류전은 2019년 9월 양 도시 장애인체육회 간 체결된 MOU에 따른 것으로, 2022년 6월 경주를 시작으로 양 도시는 번갈아 행사를 개최하며 장애인체육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오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올해로 3번째 만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경주에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경험하고 스포츠 경기를 통해 두 도시가 장애인체육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과격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행복한 가정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곧 초복인데...“삼계탕은 언감생심” 물가 폭등

외식 대표 메뉴 8개 품목 가운데 냉면·김밥·자장면·칼국수·비빔밥 5개 품목 가격 지난달 또 올랐다

5개 품목 가격 지난달 또 올랐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고온 다습한 날씨에 평소 건강한 사람도 쉬이 지치게 만든다. 더위를 이기기 위한 음식으로 대부분 보양식을 많이 떠올리지만 떨어진 식욕을 돋우고 몸의 열을 내려 더위를 막는 다양한 식재료가 있다.

맛으로 따지면 신맛(酸味)과 쓴맛(苦味)이 좋다.

신맛은 수렴작용이 있어 소모되고 흩어진 기운을 끌어 모으는데 좋고, 쓴맛은 아래로 끌어 내려 배설하는 효과가 있어 위로 치민 화기를 없애준다.

초복인데 삼계탕 언감생심

초복이 그리 반갑지 않다.
외식 대표 메뉴 8개 품목 중에서 냉면과 김밥·자장면·칼국수·비빔밥 등 5개 품목 가격이 지난 달 또 올랐다.

10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중 냉면 가격은 5월 1만1692원에서 지난 달 1만1923원으로 올랐다.

초복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 삼계탕(1만6885원)과 지난달 처음으로 1인분(200g)에 2만원을 돌파한 삼겹살(2만83원), 김치찌개백반(8천192원) 등 3개 품목의 지난달 가격은 전월과 동일했다.

지역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은 7년 전보다 20.6%(2885원) 올랐다.

삼계탕은 7년 전인 2017년 6월 1만4000원대 진입 후 5년 만인 2022년 7월 1만5000원을 넘어 데 이어 작년 1월 1만6000원대로 올라섰다.

유통가에선 이처럼 외식업계 삼계탕 가격이 2만원 안팎까지 오르자 대형마트는 물론 편의점, 이커머스, 홈쇼핑까지 '홈양쪽'(집에서 보신 음식을 즐기는 사람)을 잡기 위해 삼계탕 간편식 판촉전을 벌이고 있다.

초복

초복은 삼복의 첫째 복으로 여름의 시조를 말한다.

대략 7월 11~19일 사이에 온다. 이 시기는 소서(小暑)와 대서(大暑) 사이가 되므로 더위가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이다.

올해 초복은 7월 15일이다. 중복 25, 말복 8월 14일이다

하지 다음 제3경일(庚日) 양력 7월 12일경~7월 22일경)을 초복, 제4경일을 중복, 입추(立秋) 후 제1경일을 말복이라고 한다.

중복과 말복 사이에 때때로 20일 간격이 생기는데, 이 경우를 월복(越伏)이라 한다.

초복에서 말복까지의 기간은 일년 중 가장 더

운 때로 이 시기를 삼복(三伏)이라 하며, 이때의 더위를 삼복더위라 부른다.

복날 더위를 피하기 위해 술과 음식을 마련. 계곡이나 산정(山亭)을 찾아가 노는 풍습이 있다. 옛날 궁중에서는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빙과(氷菓)를 주고, 궁 안에 있는 장빙고에서 얼음을 나눠줬다.

민간에서는 복날 더위를 막고 보신을 하기 위해 계삼탕(鷄參湯)과 구탕(狗湯:보신탕)을 먹는다.

곡이 화에 굴하는 것을 흉하다 해 복날을 흉일이라고 믿고, 씨앗뿌리기, 여행, 혼인, 병의 치료 등을 삼갔다.

파격할인' 소식

뺏다 훔플

러스가 초복을 맞아 다양한 보양식을 최대 50% 할인한다.

'복날 싸슬이' 행사를

는 11~17일까지 진행한다.

행사는 무더위에 지친 소비자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보양식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을 할인가로 제공한다. 특히 생닭, 장어, 한우 등 다양한 보양식을 최대 반값에 할인 판매한다.

행사에서는 행사 카드로 결제 시 생닭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

수박은 5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바다장어 및 민물장어, 호주정정우 전 품목, 보막대 삼겹살과 목심, 부채살 양념구이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가격 보충에 탁월한 완도 전복은 반값에 판매된다.

삼계탕 재료도 할인 판매한다.
삼계 재료 3종과 삼계삼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삼계삼은 행사 상품인 생닭과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들도 '복날 싸슬이' 행사 상품에 포함됐다.

백숙재료 담은 통오리, 백숙용재료 담은 토종 닭, 밀키트 오후기 옛

도 춘천식 닭갈비, 동원 통그릴비엔나, 훔플식탁 통통유부초밥 등이 할인가에 제공된다.

훔플러스는 마이훔플러스 앱 스탬프 쿠폰 이벤트도 오는 11일부터 2주간 진행한다.

훔플러스 전 채널에서 3만 원 이상 구매 시 스탬프 1개를 지급하고, 스탬프 달성 개수에 따라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훔플러스는 "치솟는 외식물가로 집에서 알뜰하게 보양식을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연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 검증된 품질의 상품을 풍성한 할인 혜택으로 선보이는 만큼 무

더운 여름철을 부담 없이 기분 좋게 이겨 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훔 플 러 스 의

업체인 테스코(TESCO)의 수석 영양학자였으며, 2023년 영양·보충제에 관한 서적인 '서플리먼트 포뮬라에'(Supplement Formulae)를 쓴 작가이기도 하다.

쇼나는 여름철 건강한 피부를 위한 음식으로 체리, 키위, 아보카도, 브로콜리를 선정했다.

체리

체리에는 '프로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다.

프로 안토시아닌은 붉은 색 과일에 들어간 색소 화합물로 항산화 작용하며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피부의 각질층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피부에서 떨어져내고 새로 각화된 각질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반복하는데, 프로 안토시아닌이 이 과정을 촉진한다.

새로운 피부가 생성돼 미백효과와 부드러운 피부를 얻을 수 있다.

키위

키위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과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콜라겐 생성을 돕는다.

키위 1개당 100mg의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다. 키위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이다.

면역 세포의 70% 이상은 장에 분포하기 때문에 면역력 관리를 위해 장 건강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키위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로 작용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아보카도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풍부하다.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증 작용이 탁월해 여드름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오메가3는 피부 보호막 강화 시세포 내 보습 유지 △염증 억제에 좋다.

아보카도는 칼륨과 비타민B, 비타민E, 단백질 등이 풍부해 건조한 피부를 관리하기에 제격인 식품이다.

아보카도는 피부를 윤곽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브로콜리

브로콜리에는 유황 성분과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다.

유황 성분은 살균작용을 통해 각질을 제거하고 피지를 조절한다.

지성피부나 여드름 상처로 고민인 사람이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으면 상처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다.

브로콜리에는 체내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비타민 A는 살결이 거칠어지고 피부의 저항력도 떨어져 여드름이 잘 생기고 쉽게 붉은 피부에 좋다. 쪼미경까지



올 여름, 특별한 즐거움

일상할출 울릉도 여행

Have a Special Time in Ulleung Island

영양군, 어르신께 초복맛이 소불고기 나눔 행사

초복을 앞두고 경북도내 일선 지자체 마다 어르신 삼계탕 비롯 식사 대접...

초복을 앞두고 경북도내 일선 지자체 마다 어르신에게 삼계탕을 비롯한 식사를 대접한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흠뻑이르신,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해 이웃과 맛있는 한 끼를 나누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다. 여름철 보양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닭이다.

무더위에 지치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 닭과 황기를 함께 넣어 끓인 황기삼계탕이 체력 보강에 탁월하다.

황기는 체력을 강화시키고 살갗과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서 땀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 보양에 자주 쓰이는 약재다.

닭은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하고 원기를 보강해주는 효과가 있어 허약하고 잔병치레가 많은 소회기관이 약한 체질에 적합하다.

어린 영계에 대추, 마늘 등을 꼭 삶아 만든 삼계탕은 단백질과 채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균형식이라 여름 보양식으로 더없이 좋다.

단, 황기삼계탕은 뜨거운 성질이라 평소 몸에 열이 많아 얼굴이 붉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에게 좋지 않다.

삼복(초복, 중복, 말복)의 유래
삼복은 음력 6-7월 사이에 들어 있는 속절(俗節)이다.

하지 후 셋째 경일(庚日)을 초복, 넷째 경일(庚日)을 중복, 일주 후 첫 경일(庚日)을 말복이라 하여, 이를 삼경일(三庚日) 혹은 삼복이라 한다. 복의 어원에 대해서는 신빙할 만한 설이 없다. 다만 최남선의 조선상식(朝鮮常識)에 의하면 '서기제복(暑氣制伏)'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복은 원래 중국의 속절로 진(秦)·한(漢) 이래 매우 숭상된 듯하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 동국세시기의 기록에 의하면 "상고하면(上古)에 이르기를 진덕공(秦德公) 2년에 처음으로 삼복제사를 지냈다.

성 4대문 안에서는 개를 잡아 총재(蟲災)를 방지했다"라는 내용이 전한다.

이로 보아 삼복은 중국에서 유래된 속절로 추측된다. 오행설에 의하면 봄은 목의 기운이 왕성한 계절이고, 여름은 화의 기운이 왕성한 계절이다. 가을은 금의 기운이 왕성하고, 겨울은 수의 기운이 왕성한 계절이다.

이 伏(복)은 오행설에서 가을의 서늘한 금의 기운이 여름의 뜨거운 화의 기운을 무서워해 엎드려 숨어있었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중국 후한의 유희가 지은 사서, 혹은 중국 진나라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다.

또 다른 현대적인 해석에 의하면 복(伏)자는 '쭈는다'는 뜻도 있어서 '더위를 피하거나 무서워서 앞드려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위를 쭈어 넘기고 이기겠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삼복의 풍속
삼복은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으로 이를 '삼복 더위'라 한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더위를 이겨 내라는 뜻에서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빙표(氷票)를 주어 관의 장빙고에 가서 얼음을 타가게 했다.

복중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아이들과 부녀자들은 여름 과일을 즐기고, 어른들은 술과 음식을 마린, 산간계곡으로 들어가 탁족(濯足)을 하면서 하루를 즐긴다.

한편으로 해안지방에서는 바닷가 백사장에서 모래찜질을 하면서 더위를 이겨내기도 한다. 복날과 관계있는 속신으로 '복날에 시내나 강에서 목욕을 하면 몸이 여윈다'는 것이 있다.

이러한 속신 때문에 복날에는 아무리 더위도 목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복에 목욕을 했다면 중복과 말복 날에도 목욕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복날 마다 목욕을 해야만 몸이 여위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삼계탕
삼계탕을 즐기기도 한다. 삼계탕은 햇병아리를 잡아 인삼과 대추, 참살 등을 넣고 고은 것으로서 원기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팔죽을 쑤어 먹으면 더위를 먹지 않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해 초복에서 말복까지 먹는 풍속이 있다.

팔죽은 백사의 효험을 가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더운 복 중에도 약기를 쫓고 무병하려는 데에서 나온 풍습이다. 이외에도 닭죽, 육개장, 임자수탕, 민어국 등이 있다.

삼계탕은 검은 영계에 백삼, 창기를 넣어 끓인 것도 있고 영계에 참살, 백삼, 마늘을 넣은 영계백숙을 만들어서 닭살은 소금에 짬뽕하고, 국물엔 참살을 넣어 닭죽을 쑤어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여 먹는다.

물가에 나가서도 천렵을 하며 닭죽을 끓여 먹는다.

임자수탕(任子水湯; 잿국탕)이라 해 개를 불러 껍질을 벗기고 볶아서, 곱게 갈아 체에 발친 뽕안 국물과 영계를 꼭 삶아 고은 국물을 섞어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건지로 마나리 초대와 오이, 버섯, 등골전 등을 녹말에 묻혀 데쳐서 넣어 만든 고소하고 영양이 풍부한 냉국이 있다.

영양군, 초복행사
영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일 초복을 맞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UP, 행복UP" 초복맛이 소불고기 나눔 행사를 가졌다.



나눔은 영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한 저소득 소외가정 및 영양읍통합사레관리 대상 등 45가구를 대상으로 이들 가정이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초복을 맞아 소불고기 준비했다.

영양읍지사협의 초복맛이 소불고기 나눔은 올해 4회째로 대상자들이 매년 기대하는 선호도가 높은 행사다.

행사는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영양분관 및 국제로타리 3630지구 영양로타리클럽 작약회에서 참여했다.

영양읍지사협의 위원들과 함께 양념에 절인 소불고기와 여러 가지 야채를 직접 준비, 간단히 익혀 먹을 수 있도록 개별 포장해 지역 소외계층 가구에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소불고기를 전달받은 김모 어르신(79)은 "무더위와 장마가 반복되어 지친 일상이 계속되는데 소불고기 맛있게 먹고 활력을 되찾겠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태겸 공공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만큼 음식을 받으신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기를 했으면 좋겠다. 민·관이 함께 참여, 지역 내 이웃사랑을 실천한 뜻깊은 행사가 됐고,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단체는 매년 착한가게 후원금 및 주민 기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불고기 나눔행사, 카네이션 나눔행사, 긴급구호비 지원 등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권윤동 기자

창간 28주년

※ 접수기간 : 선착순(입금자순) 마감

2024 대구광역시일보 영덕 사랑나눔 gOLF 큰잔치



7월 24일 수요일 | 참가자 전원
영덕오션비치 골프&리조트 |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 행사장소 : 오션비치 2층 대식당

참가규모 총40팀(160명)

접수기간 ~**선착순 마감**(입금자순)

2024년 7월 24일 오전 11시 13분 ~ 순차티오프

참가신청

- 참가자격 : 전국 남·여 아마추어골퍼
- 당일 참가비 : 23만원(그린피18h, 카트1회, 저녁만찬, 참가 시상품등)
- 1박2일 참가비 : 45만원(그린피36h, 카트2회, 저녁만찬, 숙박, 조식, 참가 시상품등)
- 참가비 입금계좌 :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 김영숙
- 선입금 : 선착순마감(신청확정 후 취소시 환불불가)※본인이 양도는 가능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1600-5458
담당 010-4473-4473

시상내역

- 매달리스트(통합) : 아이언세트
- 신페리오 우승(통합) : 풀세트
- 신페리오 준우승(통합) : 아이언세트
- 신페리오 3위(통합) : 드라이버
- 니어리스트(남·여) : 퍼터
- 롱 기스트(남·여) : 드라이버
- 이글상, 최다 버티, 파, 보기, 더블파등
기타 상품지급!

<대회 참가 연예인>



사회 김용일



가수 유순실



가수 백봉기



가수 양혜승

※출연 연예인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